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6월 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04호 2016년 7월 6일 수요일

내부 갈등엔 안보이는 화쟁위 중재 권한 없이 외연만 확장

4기 활동 앞둔 조계종 화쟁위원회 과제는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가 2년 간의 3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7월 19일 4기 활동에 돌입한다. 불교계 내 갈등상황에 대한 화쟁위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3기 화쟁위원을 맡았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히 조계종 내부 문제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중공사라는 협의체를 통해 각종 사안을 해결코자하고 있지만 종단에서 무시될 수 있다.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화쟁위원회의 기능이 정작 불교계에서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 내 갈등중재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화쟁위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중재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한진중공업 파업사태를 비롯해 쌍용차 노사문제,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철도노조 파업 등에 신속하게 중재자로 나섰다. 특히 2012년 쌍용차 노조 파업 당시에는 범종교인 원탁회의까지 구성했으며, 2013년 철도노조의 중재 요청에는 이틀 만에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조계사에 은신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화쟁위원회 회의실서 만나는 장면은 화쟁위 위상을 세상에 알린 계기이기도 했다. 이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체류로 진보 · 보수 양측에게 비난을 당하는 등 제반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반면 불교계 내부 문제에는 화쟁위 역할이 국한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처음 화쟁위가 구성된 계기인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갈등문제를 비롯해 용주사 주지 임명을 둔 갈등, 동국대 총장 선출에 대한 갈등 상황에서도 조정이 결렬됐다. 동국대 사태에서는 원탁회의를 구성하긴 했지만 결국 양측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화쟁의 이상은 높았으나 불교계 현실은 차가웠다.

이에 대해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불교계 내 갈등 중재 프로세스가 전무했기 때문"이라며 "화쟁위 권한은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 종단도 화쟁위원회를 진심으로 받아 안고 있는 것인지, 혹은 하나의 부서로 취급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조계종 화쟁위 주요 활동 내역

2010년 4대강 사업 국민논의 유도
2011년 종교평화선언 초안 작성
2012년 쌍용차 사태 수습 및 중재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중재
2016년 민주노총 사태 중재

2010년 봉은사 직영사찰 중재 실패
2015년 용주사 갈등 · 동국대 사태 해법 모색
2016년 선학원 원탁회의 구성 실패

한상균 사태 · KTX 노조 갈등 중재
용주사 등 불교계 갈등서는 '한계'
"불교 내 역량 역부족" 주장 높아

법령 개정 추진… 위원 21명 확대
"실질역할 위해 중재권한 부여"
독립성 · 중립 인사 영입 주장도

4기 앞두고 운영령 개정, 하지만…

조계종은 화쟁위 4기 활동을 앞두고 6월 28일 '화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된 개정안의 골자는 그동안 이분화돼 있던 '화쟁위원'과 '기획위원' 체제를 '화쟁위원'으로 통합해 역량 및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화쟁위원도 15인에서 21인으로 늘린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만으로 불교계 내 갈등 조정역량이 커질 것이라 보는 이는 드물다. 개정안에도 화쟁위 역할은 세미나 ·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연구의뢰 등으로 국한돼있다.

박재현 화쟁문화아카데미 상임운영위원은 "화쟁은 단순히 대화가 아닌 중재 이후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종단 내 중재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여기에 객관성을 갖기 위해 화쟁위원회를 종단에서 독립시키고, 과감히 중립 외부인사를 도입하는 것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화쟁위는 해종언론 갈등 해결을 위한 집담회 개최를 위해 7월 1일 관계단체 회의를 갖는 등 행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정웅기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은 "매우 민감한 현안에 대해 화쟁적으로 명쾌하게 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갈등이 권위나 권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해결되기에 의식과 풍토를 바꿔나가는 과정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릴레이'로 동참해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릴레이 모연이 시작됐다. 조계종은 6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릴레이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스님이 전화 등을 통해 신도들에게 모연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신도들이 다른 신도들에게 취지를 홍보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왼쪽서 네 번째)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 스님들이 모연등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용성 스님 설립 '화과원' 사적 지정 가속화

함양군, 12월까지 연구 후 문화재청과 지정 협의 진행

국내 유일 독립자금 조달 농장 선농일치 구현… 불교적 의미도


용성 스님이 설립한 독립자금 조달 농장 '화과원' 법당 전경. 2005년 복원됐다.

상해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처 역할을 한 경남 함양군 백전면 백운산 '화과원(華果院)'의 국가사적 지정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지정 추진이 되는 화과원은 백운산 8부 능선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3 · 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 33인 중 한 분인 백용성 스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어서 불교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은 백용성 스님이 선수행과 생산 활동을 병행해 나간다는 선농일치 불교사상을 실천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자 1927년 창건한 농장이다.

만해 스님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백용성 스님은 선농불교를 주창하면서 일제 탄압을 피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려고 임야와 황무지 300여 정보(90여만 평)를 매입, 농장을 일궜다. 용성 스님은 화과원서 배나무, 감나무, 밤나무, 감자 등을 재배해 판매한 수익금과 도자기를 구워 판매한 수익금을 군산항을 통해 중국 상해와 용정 등지에 독립자금으로 보냈다. 안타깝게도 화과원은 한국전쟁 때 전소해 방치되다 다행히 1991년 정혜원(백용성 선사 손상좌) 스님이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관리돼왔다. 함양군의 지원을 받아 혜원 스님이 2005년 복원한 법당인 봉류대는 2000년 8월 31일 경남도 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받아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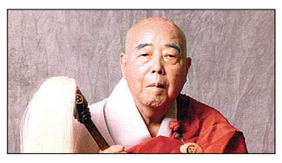
해당지자체인 함양군은 경남도 지원을 받아 사업비 6천만 원을 들여 6월~12월까지 6개월간 '함양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기본연구용역'과 '도자기를 굽던 도요지터 발굴조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2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을 방문, 국가사적 지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독립자금을 마련한 농장인 화과원 유적지를 본격적으로 조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국가사적지로 추진하겠다"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백용성 스님의 업적과 역사적 교훈을 후손에게 전하는 교육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24일 창원 아리랑 호텔서 임창호 군수를 비롯한 전국 각계각층 100여 명은 함양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창립총회(위원장 진종삼 前 경상남도의회 의장)를 열었다. 김주일 기자

1104호 INDEX

시방세계 5
'살아있는 역사'
혜성대종사 화보집 발간



산문 밖의 禪 14 · 15
중요 무형문화재 제80호
최유현 자수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WWW.JONGJEONG.COM

본회는 1995년 창립 사단법인으로써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불교 발전을 위하여 종단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면서 회원종단 행사는 물론 애경사시 종정스님 전원이 동참하여 법석을 장엄하게 하며 화환 및 조화를 모두 보내주고 특히 회원(종정)열반시 100만원 상당의 조의금과 회원(종정) 전원이 동참하며 조화를 모두 보내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한국불교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미가입 종단 종정스님께서는 본회에 가입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원 (현재)

고문 : 석무찰 대종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3세종정
원로의원 : 석정암 대종사 (사)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석혜지 대종사 (사)대한불교해인종 종정
석법광 대종사 세계불교법륜종 종정
석석봉 대종사 대승불교삼론종 종정
석혜봉 대종사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석혜우 대종사 일광조계종 종정
석덕산 대종사 대한불교천지종 종정
석혜경 대종사 한국불교아함종 종정
석지공 대종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명예회장 : 석지산 대종사 (사)한국불교정토종 (전)종정
명예회장 :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회장 : 석대응 대종사 선불교조계종 종정
수석부회장 : 석청운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상임부회장 : 석청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부회장 : 석룡담 대종사 대한선불교조계종 종정
회원 : 석영월 대종사 대한불교법사종 종정
회원 : 석진공 대종사 대한불교광명조계종 종정
회원 : 석법홍 대종사 (재)세계불교 미륵대종 종정
회원 : 석강암 대종사 한국불교임제종 종정
회원 : 석혜륜 대종사 (사)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회원 : 석현불 대종사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회원 : 석만청 대종사 (사)대한불교대각종 종정
회원 : 석법운 대종사 (사)대한불교선교종 종정
회원 : 송호암 대종사 대한불교총원효종 종정
회원 : 석법혜 대종사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회원 : 석해월 대종사 대한불교백두종 종정
회원 : 석도우 대종사 대한불교반야선종 종정
회원 : 석연봉 대종사 대한불교성덕종 종정
회원 : 석정일 대종사 근본불교해동종 종정
회원 : 석혜승 대종사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회원 : 석운조 대종사 세계불교천지종 종정
회원 : 석성진 대종사 한국생활불교지장종 종정
회원 : 석일월 대종사 한국불교지장종 종정

(사) 대한불교종정협의회 법인이사진 (현재)

이 사 장 :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상임이사 : 석청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석대응 대종사 선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석지산 대종사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이사 : 석정암 대종사 (사)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석혜지 대종사 (사)대한불교해인종 종정
이사 : 석혜봉 대종사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이사 : 석혜우 대종사 일광조계종 종정
이사 : 석룡담 대종사 대한선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석청운 대종사 (사)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이사 : 석진공 대종사 대한불교광명조계종 종정
이사 : 송호암 대종사 대한불교총원효종 종정
이사 : 석법혜 대종사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이사 : 석해월 대종사 대한불교백두종 종정
이사 : 석도우 대종사 대한불교반야선종 종정
이사 : 석일월 대종사 대한불교지장종 종정
사무총장 : 이붕 서병열 (일붕신문사 발행인)
기획실장 : 건진 전성배
사무국장 : 상광 배영희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동부상가맨션 2층 216-1호 전화 : (042) 285 -1227
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1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 : (02) 756-1227 팩스 : 774-1487